

# 전세사기 피해예방 부동산 무료상담소

### 울산 중구, 공인중개사 4명 상담 위원 위촉...매주 수요일 맞춤형 상담



울산 중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부동산 무료 상담소'를 운영한다.

중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부동산 무료 상담소 상담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한 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내 상담 창구에서 부동산 무료 상담소를 운영한다.

부동산 무료 상담소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절차 및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절차 및 관련 법률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이호근 기자

# 역대 최대 실적!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 역대 최대 691개 기업·기관 참가, 구매·수출·투자 상담액 3,506억 기록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한 전국 유일 원스톱 종합 비즈니스 축제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와 성과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판로 개척과 혁신 인재 채용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91개 기업·기관이 참가하고, 2,500명의 참가객이 방문했다. 특히 전체 상담액은 지난해(3,420억 원)를 넘어선 3,506억 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 종합지원 행사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는 삼성, SK, LG, 현대 등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112개사가 수요처로 참여해 중소기업 158개사와 63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130억 원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수출상담회'에서는 9개국 24개사 해외 바이어와 27개 전문무역상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121개사와 364건의 1:1 미팅을 진행했으며, 1,304만 달러 규모의 상담액과 407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에는 23개 투자사와 32개 기업이 참가

해 2,180억 원의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인재채용 프로그램과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기술상담회를 신설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 대학 및 특성하고·마이스

티고와 연계한 '채용관'에서는 ㈜서한, 피에이치에이㈜, ㈜텐티스 등 지역 대표 기업 97개사가 참여해 구직자들과 1,907건의 상담 및 면접을 진행했다.

'기업 애로기술 상담회'에서는 61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와 애로기술·신사업 분야 1:1 기술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각 대학,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지원시제 종합설명회'에서는 기업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을 안내했으며, '기업애로 상담부스'에는 19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국제청, 대구본부세관, 조달청 등 지원기관들과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경기 행정부시장은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경제 주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 진주시, 공공기관 2차 이전준비에 착착

### 유휴 부지 및 공실 등 집중 점검으로 이전 기관별 맞춤형 제공 준비



경상남도 진주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하여 활용 가능한 부지 등을 확인하고 정주여건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은 경상남도와 함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와 건물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정부의 2차 이전 계획 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건물, 부지 등을 사전에 리스트화하여 선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

울러 진주시는 2032년까지 문산읍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2차 이전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의 방침 등에 원도심 지역도 이전 가능 구역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설된 공공기관이전TF팀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우후항 공청 직원들에게 마련했던 이주 지원과 주거지원 외에도 종합 패키지 지원 등을 담은 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2026년 8월경 복합문화도서관 준공과 2028년 대곡고등학교 설립이 마무리될 경우 문화와 체육, 교육 분야의 정주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합동점검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완성할 핵심 과제"라며, "1차 이전을 통해 집적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완벽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정주여건 만족도 2위(2024년), 인구 증가율 343%(9900명 → 3만 4000명), 2015~2024년 총 지방세수 혁신도시 1위(2024년 515억 원), 인재채용(1065명)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1차 이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24일 '이현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1120㎡에 33편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최성룡 기자

# 부산 전국최초 시내버스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운영

### 4.1.부터 85번(유한여객) 버스 12대에 30인치 이하 캐리어 반입 가능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방문 외국인 400만 시대에 대비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관광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

은 시내버스 85번 노선(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85번 노선은 영도·부산역·서면·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영도 지역의 높은 시내버스의 의존도와 주요 관광·도심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반입 대상은 30인치 이하 여행용 캐리어이

며, 출퇴근 시간대 (07:00-09:00, 17:00-19:00)를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차량 혼잡 등으로 승객 안전에 지장이 있을 때는 운수종사자 판단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캐리어는 차량 내 교통약자(휠체어)의 공간의 철재 구조물에 걸착해 보관하며, 승객 1인당 1개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객 등 교통약자 탑승 시 해당 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을 하고, 차량 내·외부 안내 스티커 부착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기간 민원 발생 현황, 안전사고 여부, 이용객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큐알(QR) 설문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 기준 마련 및 타 노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유우 기자

# '아이시티'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준공해

### 경상북도, 장애 아동 조기 재활지원 및 재활의료산업 육성 본격화



경상북도는 24일 경산에서 '아이시티(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어린이 재활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김유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화장품산업과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 관계자와 관련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의 선천적·후천적 장애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기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전문화된 재활기기 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 경산시와 함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91억 원을 투입해 경산시 미래로 118(경북권역재활병원 인근)에 지상 2층규모의 '아이시티(ICT)융복합어린이재활기기실증센터'를 조성했다.

센터는 장비시험실, 재활훈련과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1호 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개발계획(안) 작성과 시작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단장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 신뢰성 검증, 시제품 제작, 기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북권역재활병원 등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기업이 정보통신기술 기반 재활기기의 성능과 임상적 유효성을 현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어린이 재활기기 제품의 상용화 지원은 물론, 정보통신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 의령 '청림 상생회' 취약분야 정면 개선

의령군은 군청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소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공무원 중심 청림 회의체인 제1차 '청림 상생회'를 열고 2026년 청림정책 추진 방향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와 부패 취약분야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6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평가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의령군은 공사·용역, 재·세징, 인·허가, 보조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준과 절차를 갖추는 것뿐 아

니라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부서별 안내 방식의 일관성과 사전 안내 강화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의령군은 올해 ▲사업 초기 단계 청렴 사전 점검(First Look) 제도 ▲청렴민원 모니터링 ▲반부패 자기관리 시스템 ▲계약업무 사전검토 제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민청렴참여단'을 구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청렴행정을 강화한다. 참여단은 읍·면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며, 부패 의심사례와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령군은 이를 감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

이다.

의령군은 2023년 '모솔회(모두모아 솔선수범 회의체)', 2024년 '방위대(방안수립 위한 대책본부)', 2025년 '다과회(다함께 과제추진 회의체)'에 이어 올해 '청림 상생회'를 운영하며 청렴 회의체를 이어오고 있다. '청림 상생회'는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대만 의령군수는 "청렴은 기준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현장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룡 기자

# 산불 피해를 기회의 땅으로 산림투자선도지구 가동

경상북도가 산불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산림투자선도지구'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검토에 들어갔다.

경상북도는 작년 산불특별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산림투자선도지구 민간투자 전담팀으로 운영해 민간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발굴된 후보사업으로는 ▲산림레이저탄(정송), ▲호탈·리조트(안동),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안동, 영덕), ▲농공단지 수직농장 스마트팜(안동, 의성,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영양) 등이 있다.

경북도는 후보 사업들 중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의 성숙도와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1호 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개발계획(안) 작성과 시작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안동, 영덕), ▲농공단지 수직농장 스마트팜(안동, 의성,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영양) 등이 있다.

경북도는 후보 사업들 중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의 성숙도와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1호 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개발계획(안) 작성과 시작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보통 착공까지 인허가 등을 감안할 때 2~3년이 걸리는 만큼 상반기 내 1호 사업을 선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산림투자선도지구 1호 사업 선정을 서두르겠다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물론 투자보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까지 함께 투입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투자자가

원하는 규제완화 사항들이 미리 계획에 반영하면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 '산지관리법', '농지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의 제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특별법상 '산림투자선도지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윤석 기자